

#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융합된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천혜원<sup>1</sup>, 유미선<sup>2</sup>, 전미진<sup>3\*</sup>

<sup>1</sup>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sup>2</sup>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sup>3</sup>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Cheon Hye Won<sup>1</sup>, Mi-Sun Yu<sup>2</sup>, Mee-Jin Jun<sup>3\*</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nam Techno University

<sup>3</sup>Affil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20일 사이 G, J 지역의 220명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인관계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인성의 평균은 3.50이었다. 인성의 하위영역 중 인지영역은 3.55, 정의적 영역은 3.60, 행동적 영역은 3.38이었다. 인성은 대인관계와 정적상관( $r=.74, p<0.01$ )을 나타냈고, 학교생활 적응과도 정적상관( $r=.63, p<0.01$ )의 관계였다. 인성의 하위변인인 인지적 영역( $r=.854, p<0.01$ )과 정의적 영역( $r=.815, p<0.01$ ), 그리고 행동적 영역( $r=.744, p<0.01$ )과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는 두 변수사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개발하며 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대인관계, 인성, 융합, 적응, 학교생활, 치위생(학)과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0 dental hygiene students located in G, J regions between July 23, August 20 in 2018.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in order to media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using SPSS 18.0 program. The dental hygiene students got a mean 3.50 in character. Among the inferior factors of character, it got 3.55 knowing factor and 3.60 feeling factor and 3.38 behaving factor. Charact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r=.74, p<0.01$ ) and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r=.63,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r=.65, .69, .77, p<0.01$ ) and had a positively correlation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r=.56, .56, .68,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r=.80,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perfec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study suggest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did an surely mediating role between characte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ey Words** : Interpersonal relation, Character, Convergence, Adjustment, College life, Dental Hygiene department

\*Corresponding Author : Mee-Jin Jun(jmejin@hanmail.net)

Received October 5,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2,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현장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대학졸업생의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1].

인성은 사람의 성품 또는 개인이 가진 사고나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바탕, 됨됨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둘 중 마음 바탕은 개인의 기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며 교육으로 변화되기 어려우나, 다른 요소인 사람의 됨됨이는 사람이 지니는 품성이나 인격으로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2].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격증, 스펙과 학점관리에 집중되면서 교육 본연의 목적인 인성발달에 필요한 소양과 가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대학교육에서도 등한시 되고 있다[3]. 비록 교육과정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학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인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고, 또한 사회에 진출을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과업들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4]. 이러한 사회의 환경적인 변화는 올바른 인성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를 요구한다[5]. 또한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은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정신질환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좌절감과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중감이 부족하게 되어 모든 일 처리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6].

특히 치위생(학)에서의 인성이란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 좋은 이미지의 치과위생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치과위생사는 전문가로서 임상 실무능력이 탁월하며 윤리와 도덕,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치위생(학)과를 선택하여도 치과위생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춘 학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치과위생사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만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형성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중요하지만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치과계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대인관계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대학생활 적응 뿐 만아니라 학생의 질적인 역량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적응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은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성숙된 성인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의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7].

요즘은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족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동료학생이나 교수 등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8]. 또한 이러한 능력은 학과 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9].

특히 치위생(학)과는 학생들에게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치위생 기술 뿐 만아니라 미래의 치과위생사로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접촉함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배려와 성실, 존중 등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과 대인관계는 대학 교육을 통해 꾸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수준 및 인성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0]와 간호계열[11]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2]들이 많이 행하여졌지만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의 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가며,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인관계가 나머지 두 변수에 매개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 및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대인관계와의 매개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에 관한 영역별 평균을 파악한다.
-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인관계와의 매개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J와 G지역에 소재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양측검정 유의수준 .05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비밀 보장,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 크기인 .15, 검정력 95%로 G\*power 3.1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표본 수는 220명으로 나타났다[13].

### 2.3 연구도구

#### 2.3.1 인성

인성이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인격, 성품, 인간성, 기질, 됨됨이, 인간의 본성 등을 말한다. 인성은 이 [14] 등이 개발한 대학생용 바롬 인성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60개의 문항

으로 3개의 하위 영역인 인지영역, 정의영역, 행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영역은 23개 문항(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도덕적 가치를 앎 7문항, 반성적 의사결정 3문항, 자기이해 3문항,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의영역은 25문항(양심 5문항, 자기존중 4문항, 감정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영역은 12문항(의지 및 능력 7문항, 습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각 세부 요인별 Cronbach's의  $\alpha$ 계수는 인성 0.980, 인성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영역 0.893, 정의적 영역 0.966, 행동적 영역 0.936으로 모두 신뢰도의 계수가 0.8이상으로 내적일치도가 매우 높았다.

#### 2.3.2 학교생활 적응력

학교생활 적응에 사용된 도구는 정과 박[15]이 개발한 도구로 총 19개 문항으로 5개의 범주인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 심리 4문항, 사회 체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 신뢰도는 Cronbach's의  $\alpha$  0.961 이었다.

#### 2.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sey[16]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17]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7개의 하위영역으로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2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의  $\alpha$  0.964 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 (P01-201807-22-011)을 받은 후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지역에 연구자 2명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 후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 2.5 통계분석

치위생(학)과의 대인관계 요인은 인성의 매개변수로써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18]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알아보았고,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8]의 3단계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회귀분석 통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Y(1-4)=a+b1X+b2Z+e$$

Y(1-4) : 학교생활적응 요인(1-대학환경적응, 2-정서적응, 3-학업적응, 4-사회적응), X:인성, Z:대인관계

## 3. 연구결과

### 3.1 인성,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연구변수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인 치위생(학)과 학생의 인성은 평균 3.50점, 인성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영역은 3.55점, 정의적 영역은 3.60점, 행동적 영역에서는 3.38점으로 세 가지 변인 중 행동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모두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3.40점, 학교생활 적응은 3.33점으로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모두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3.2 인성,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

인성,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의 변인간 관계를 상관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성영역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영역과도 정적상관( $r=.854^{**}$ ,  $p<0.01$ )을 보였고, 정의적영역과 행동적 영역과도 정적상관( $r=.815^{**}$ ,  $p<0.01$ ), ( $r=.744^{**}$ ,  $p<0.0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상관( $r=.634^{**}$ ,  $p<0.01$ )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와도 정적상관( $r=.743^{**}$ ,  $p<0.01$ )을 나타내었다.

Table 1. The level in character,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terpersonal relation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Character	3.00	5.00	3.50	0.63
Knowing factor	2.00	5.00	3.55	0.65
Feeling factor	3.00	5.00	3.60	0.62
Behaving factor	2.00	5.00	3.38	0.70
Interpersonal relation	2.28	5.00	3.40	0.57
Adjustment to college life	1.80	4.00	3.33	0.67

Table 2. The Correlation of character,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terpersonal relation

Variables	Character	Knowing factor	Feeling factor	Behaving factor	Interpersonal rela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	1.00					
Knowing factor	.854**	1.00				
Feeling factor	.815**	.722**	1.00			
Behaving factor	.744**	.626**	.623**	1.00		
Interpersonal relation	.743**	.675**	.699**	.774**	1.00	
Adjustment to college life	.634**	.564**	.562**	.687**	.801**	1.00

\*\* $p<0.01$ ,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3.3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인성,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는 Table 3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인성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0.744, p<0.001$ ),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beta=0.634, p<0.001$ ), 3단계 회귀분석에서도 대인관계가 매개변수로서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39, p<0.001$ ). 즉, 매개변수 통제 전후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보면 1단계에서의 영향력( $\beta=0.744, p<0.001$ )이 3단계에서 ( $\beta=0.084, p>0.05$ )으로 줄어들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으며 Fig 1과 같이 대인관계가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알수 있었다.

3.4 인지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인지적 영역,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인지적 영역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0.675, p<0.001$ ),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beta=0.564, p<0.001$ ), 3단계 회귀분석에서도 대인관계가 매개변수로서 학교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73, p<0.001$ ). 즉, 매개변수 통제전후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보면 1단계에서의 영향력( $\beta=0.675, p<0.001$ )이 3단계에서 ( $\beta=0.043, p>0.05$ )으로 줄어들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으며 대인관계가 학교생활 적응과 인지적 영역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F	R <sup>2</sup>
1	Interpersonal relation	Character	0.682	0.042	0.744***	269.51	0.551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	0.674	0.056	0.634***	146.30	0.399
3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	0.090	0.064	0.084	197.89	0.643
		Interpersonal relation	0.857	0.070	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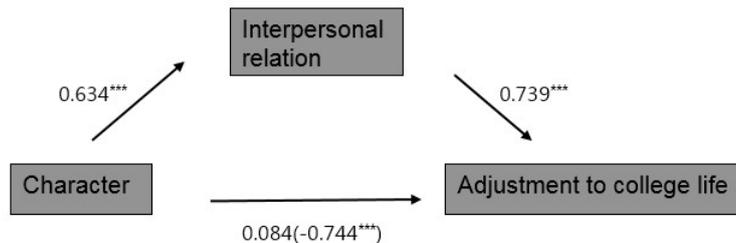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Knowing fact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F	R <sup>2</sup>
1	Interpersonal relation	Knowing factor	0.594	0.044	0.675***	182.25	0.453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Knowing factor	0.576	0.057	0.564***	101.89	0.315
3	Adjustment to college life	Knowing factor	0.044	0.056	0.043	196.03	0.64
		Interpersonal relation	0.896	0.064	0.773***		

### 3.5 정의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매개효과

정의적 영역,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관계의 매개효과는 Table 5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정의적 영역은 매개 변수인 대인관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0.699, p<0.001$ ),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beta=0.562, p<0.001$ ), 3단계 회귀분석에서도 대인관계가 매개변수로써 학교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800, p<0.001$ ). 즉, 매개 변수 통제전후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보면 1단계에서의 영향력( $\beta=0.699, p<0.001$ )이 3단계에서 ( $\beta=0.003, p>0.05$ )으로 줄어들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으며 대인관계가 정의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 3.6 행동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매개효과

행동적 영역,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관계의 매개효과는 Table 6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행동적 영역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0.799, p<0.001$ ),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beta=0.695, p<0.001$ ), 3단계 회귀분석에서도 대인관계가 매개변수로써 학교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682, p<0.001$ ). 즉, 매개 변수 통제전후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보면 1단계에서의 영향력( $\beta=0.799, p<0.001$ )이 3단계에서 ( $\beta=0.150, p<0.05$ )으로 줄어들었으며, 대인관계가 학교생활 적응과 행동적 영역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Feeling fact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F	R <sup>2</sup>
1	Interpersonal relation	Feeling factor	0.642	0.044	0.699***	207.99	0.486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Feeling factor	0.598	0.060	0.562***	100.52	0.312
3	Adjustment to college life	Feeling factor	0.003	0.060	0.003	195.17	0.639
		Interpersonal relation	0.927	0.066	0.800***		

\*p<0.05, \*\*\*p<0.001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Behaving fact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F	R <sup>2</sup>
1	Interpersonal relation	Behaving factor	0.658	0.034	0.799***	386.03	0.637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having factor	0.664	0.047	0.695***	203.66	0.481
3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having factor	0.143	0.064	0.150*	202.22	0.647
		Interpersonal relation	0.791	0.077	0.682***		

##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변수간 대인관계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인성을 향상시켜서 학교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 시 치위생(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 평균은 3.50/5점 만점, 대인관계 평균은 3.40/5점 만점, 학교생활 적응은 평균 3.33/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영역은 평균 3.55/5점 만점, 정의적 영역은 평균 3.60/5점 만점, 행동적 영역의 평균은 3.38/5점 만점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인성에 관한 하위영역의 순위를 매겨보면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순이었으며, 정의적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심

[19]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의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동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광[20]의 연구에서도 인성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바, 정의적 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행동적 영역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같은 도구로 전체 대학생들에게 조사한 연구[21]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로 아직 행동통제가 어려운 시기라 볼 수 있으며, 정의적 영역에서의 점수가 높았으며, 정의, 인지적 영역은 양심, 자기존중감, 감정이입, 선을 사랑, 자아통제, 겸양 등 내적 요소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 정의적 영역의 높은 성취요인과 취약한 행동적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론과 실습이 통합되어 성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22] 등의 연구에서는 인성이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옳은 것을 알고 느끼는 것에 비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비교적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성교육에 올바른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배양해 주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성은 대인관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대학생활 적응과도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이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가 높고, 대학생활 적응도 또한 높으며, 학교생활 적응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23]의 연구에서도 창의적 인성이 학습몰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인성이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송[24]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교육에 이어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치위생 학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이기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인성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대인관계가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켰으며,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였고, 대인관계에 의해 통제를 받을 때, 직접적 영향은 사라지고,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만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학

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인성을 기르는 교육 보다는 매개역할을 하는 대인관계에 역점을 둔 행동적 요인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판단하는 바이다 [25,26].

박[27]의 연구에서는 입시위주교육 등으로 인해 사람과의 적절한 인관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입학하게 됨으로 사람과의 적절한 인관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바 있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이나 대학 내의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인성의 하위변인인 정의적, 인지적 영역은 개인의 내적인 영역이며, 행동적 영역은 개인의 외향적 영역으로 인성의 하위변인에서도 내적영역과 외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성의 하위변인들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적인 역할이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가지는 내재적인 인성에 속한 양심, 자기존중감, 감정이입, 선을사랑, 자아통제, 겸양 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나, 대인관계에 의해 통제를 받아 간접적인 영향만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28]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를 매개로 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유대감, 자율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인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인성과 대인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지역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향후 임상실습과 연계된 대인관계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인성과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업무의 만족도와 매개정도를 파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한층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 연구는 J와 G지역에 위치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성은 평균 3.50점이었다. 인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영역은 3.55점, 정의적 영역은 3.60과 행동적 영역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는 3.40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학교생활은 3.33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 인성은 대인관계와 정적상관( $r=.743$ ,  $p<0.01$ )을 나타냈고, 학교생활 적응과도 정적상관( $r=.634$ ,  $p<0.01$ )의 관계였다. 인성의 하위변인인 인지적 영역( $r=.854$ ,  $p<0.01$ )과 정의적 영역( $r=.815$ ,  $p<0.01$ ), 그리고 행동적 영역( $r=.744$ ,  $p<0.01$ )과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3.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대인관계는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4. 인성의 하위변인인 인지적영역, 정의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대인관계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5. 인성의 하위변인인 행동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대인관계가 행동적 영역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인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개발하며 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S. S. Yang, H. I. Kim & K. P. Joo. (2006).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J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9(2), 145-170.
- [2]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42.
- [3] S. W. Park. (2015). *Humanities, liberal arts education, redefining the relationship for the poetics of character education congress forum Academic seminar*.
- [4] H. S. Lee. (2014).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Yonse, Seoul.
- [5]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3-2647.
- [6] J. N. Kim & H. W. Cheo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focus on Jeollabuk-do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J Food Service Industry*, 9(3), 81-92.
- [7] S. H. Shin. (2015).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5(6), 1033-41. DOI : 10.13065/jksdh.2015.15.06.1033
- [8] H. S. Park. The study of affected on adjustment college life in social capability. *Student life research lab*, 18(10), 55-83.
- [9] H. S. Song, E. S. Na & Y. H.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3(1), 72-81.
- [10] S. H. Lee & C. H. Yoon. (2015). *Effect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4), 539-570.
- [11] M. R. Lee & M. H. Nam, (20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12(6), 509-517.
- [12] Y. N. Jin & S. H. Kim. (2012). A plan on the character education in practical arts. *Korean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12(2), 250-274.
- [13] F. Faul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14] Y. S. Lee, H. Y. Kang & S. J. Kim. (2013).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261-282.

[1] S. S. Yang, H. I. Kim & K. P. Joo. (2006).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15]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J of educational methology studies*, 21(2), 69-92.

[16] A. Shlein & B. G. Guernsey.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Josey-Bass.

[17]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3.

[18]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onality Soc Psychol*, 51, 1173-82.

[19]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20] M. R. Lee & Y. K. Kwag. (2017). *Effects of developmental task on adaptation in college Living of nursing students*. Asia-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 897-905.

[21] H. J. Park & Jang I. S.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22] Y. S. Lee, H. Y. Kang & S. J. Kim. (2013).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Ethics Education*, 31, 261-282.

[23] G. E. Lee. (2010). Connec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creative personality and immersion.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10(2), 45-59.

[24] H. S. Song, E. S. Na, Y. H. Jeon & K. I. Jung. (2016).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3(1), 72-81.

[25] S. I. Choi & K. H. Choi. (2015).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undergraduate orchestra club activities-A convergent aspects of statistical method and opinion mining. *J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6(4), 25-31.

[26] S. U. Wie. (2017). Convergence study of learned helpless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307-14.

[27] H. S. Park. (2004). The effect of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social competent. *J Student Guidance*, 18,

55-83.

[28] S. J. Lee. (2009). The effect of sense of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 Testing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J Korean School Psychology*, 6(2), 229-248.

천 혜 원(Hye Won Cheon)

[정회원]



- 2010년 3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구강보건, 임상치과
- E-Mail : hs5909@hanmail.net

유 미 선(Yu, Mi Sun)

[정회원]



- 2003년 8월 :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구강보건, 임상치과
- E-Mail : misuny3273@hanmail.net

전 미 진(Jun, Mee Jin)

[정회원]



- 2011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 졸업(보건학박사)
- 2011년 ~ 2016년 8월 : 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덴바이오 연구원, 광주보건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 임상치과
- E-Mail : jmejin@hanmail.net